

대학도서관 단행본 자료의 장서폐기에 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iscarded Books in Academic Libraries

이용민 (Yong Min Lee)**

이지연 (Jee Yeon Lee)***

초 록

본 연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대학도서관 단행본 장서폐기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의 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사서 대상 면담을 통해 장서폐기와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서폐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서 규모가 200만 권 이상인 대학도서관 그룹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장서폐기가 진행되었고, 장서구성 면에서는 단행본 복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3회 이상의 장서폐기 작업과 1회 이상의 대량폐기를 시행한 기관의 사서 면담 결과, 대량의 장서폐기 과정에서 다수의 단행본 복본이 폐기되는 가운데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내용적 가치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제약도 토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서폐기가 장기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도서관들이 거시적으로 장서구성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를 제안하였다. 폐기 단행본의 가치를 평가하여 디지털장서로 구축하고 소장도서의 복본 수를 디지털장서의 이용권 개념으로 유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creasing book disposal trend within academic libraries by analyzing the disposal status over ten years and interviews with the librarians. The analysis utilized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disposal information from 2010 to 2019. The academic libraries with more than 2 million books had disposed of the most number of books. This trend led to a distinctive decrease in the books' duplicate copies in terms of the collection composition. The librarians from the organizations, which conducted disposal more than three times and one massive removal within ten years, revealed in the interviews that they discarded many valuable duplicate books. They discussed the importance of digitizing high-value resources and also the limitation imposed by the copyright law.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book disposal can cause changes in the collection composition in the long run and suggested that academic libraries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The study also suggested evaluating the discarded books' values to guide the digitization efforts and count the number of books to include digital book use rights.

키워드: 폐기정책, 폐기, 장서 폐기율, 전자도서관, 대량 디지털화, 도서관면책, 디지털 아카이빙
weeding policy, weeding, discard rates, digital library, mass digitization, library exemption, digital archiving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3499).

**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lyma@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1년 2월 22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3월 14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3월 19일

■ 정보관리학회지, 38(1), 71-86,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1.071>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작업은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자에게 쾌적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서관리 활동의 하나이다. 주기적인 서가 관리와 함께 불필요한 자료를 걸러내고, 활용성이 높은 자료를 비치해서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장서폐기의 긍정적인 효과이다. 대학도서관 장서 중에서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의 온라인 접근이 확대되고 보편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유형의 자료들이 차지했던 공간은 이용자 중심의 열람공간이나 첨단 학습공간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장서폐기 과정은 사서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과업이며, 자료별로 세심하게 점검할 경우 도서선정 과정과 비슷한 주제사서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김미혜, 리상용(2011)은 장서폐기규정과 선정기준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장서폐기를 진행한 기관을 설문 조사하여,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개선 방안으로 도서관 업무 전반에 이해력을 갖춘 전문 담당사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폐기대상 자료의 이용정보를 고려한 다양한 기준과 학문 분야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과 주제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의 학술정보통계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에서는 대량의 장서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폐기 단행본 장서 가운데 계속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폐기 기

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사서들이 단행본 폐기도서의 콘텐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같은 장서폐기의 내용적인 면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현황 분석 및 폐기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폐기대상 자료의 선별 기준, 처리 과정, 처리방법 등의 세부사항과 폐기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기 단행본 장서의 콘텐츠 활용가치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현황과 폐기 대상으로 선별되는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통계분석, 장서폐기에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인터뷰 등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현황, 규정, 기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만, 2014년 이전의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최근의 이슈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현황을 조사한 연구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가 마지막이었음을 주목하여, 최근 현황파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학술정보통계 사이트에 공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학술정보통계 사이트에 등록된 458개 기관 중에서 연

간 장서폐기율을 확인하여 장서폐기 규모가 크다고 판단한 113개 기관의 장서폐기 현황을 분석하고, 장서 규모에 따른 그룹별 특성을 나누어 특징이 드러난 그룹의 데이터를 상세 분석하였다.

각 기관의 매년 폐기율을 계산하여 장서폐기가 일어난 횟수와 2.5% 이상 큰 규모의 폐기가 이루어진 횟수를 구하고, 가장 많은 장서폐기를 시행한 기관이 소속된 그룹을 선별하여 기관별 장서변동 추이, 복본율, 폐기율을 계산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서폐기의 특징이 드러난 기관들 가운데 면담 대상기관을 선별하였고, 해당 기관의 장서폐기 기준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수집하였다.

셋째, 분석결과 10년간 3번 이상의 장서폐기와 1번 이상 2.5% 이상의 집중폐기를 실시한 대학도서관의 데이터와 홈페이지의 장서폐기 규정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기관 중 총 12개의 대상기관을 선별하여 면담 요청을 하였고, 수락을 한 8개 기관의 사서들과 면담을 통해 단행본 폐기 선별의 세부기준, 처리 과정, 처리방법 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장서폐기 기준에 '5년간 이용이 없는' 자료로 대출기록이나 상호대차 등 이용기록을 명시한 경우 면담을 통해 주제별 자료특성의 반영 여부 등 대상 도서에 대한 선별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였다. 폐기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량 장서폐기를 시행한 사유, 폐기자료의 성격, 폐기규정의 특별조건 등을 질문하였다. 기준, 규정, 처리방법 및 대상 자료 선별 조건의 질문들은 반 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폐기자료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사

서 인식, 장서폐기 이후의 해당 도서의 이용요구 여부, 향후 해당 기관의 소장공간문제 해결에 대한 사서 인식에 관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탐색적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사서들에게 폐기 장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폐기 단행본의 활용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서에게는 디지털화를 통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추가 질의하였고, 저작권법과 관련된 동시 이용자 수 제한 규정과 개념, 도서관 디지털화의 장애 요소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질문의 확장 과정에서 사서들의 의견과 제안이 추가 수집됨에 따라 폐기 단행본의 디지털화 및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1.3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질문 1. 지난 10년간 대학도서관에서 진행된 장서폐기는 대학도서관 장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연구 질문 2. 과거 10년간 집중폐기가 진행된 대학도서관에서 장서폐기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가?
- 연구 질문 3. 폐기된 장서에 대한 이용요구에 대해서 각 기관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 연구 질문 4. 도서관 자료의 아카이빙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어떠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 요소와 해결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장서폐기규정과 폐기자료 선정기준에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면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에 폐기장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mass digitization)를 수행하면서 논의되었던 저작권 관련된 논문들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2.1 대학도서관 장서폐기규정과 선정기준

2010년 이전에 장서폐기를 다룬 논문들은 대학도서관이 장서폐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성문화하는 문제와 장서폐기의 필요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권기백(2008)은 대학도서관에서 장서폐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비교적 대학도서관의 폐기지침 사례를 상세하게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장서 수를 늘린 결과 질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가 비치되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서폐기를 제안하였다.

김미혜, 리상용(2011)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연간 110권 이상의 장서를 폐기한 경험이 있는 4년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32개 기관의 장서폐기 운영현황, 지침현황, 인식조사를 하였다. 대학도서관 폐기지침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였고, 폐기규정 안에 목적, 시기, 범위, 기준, 절차, 처리방법, 결재권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성문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의 논문에 앞서 김미혜(2010)는 대학도서관

의 장서폐기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9년 기준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장서 수 상위기관 목록에서 장서폐기기준이나 지침을 공개한 5개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기준을 성문화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규정에 명시할 수 있는 기준과 세부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장서폐기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폐기자료의 선별을 위한 상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김미혜는 장서폐기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가 제시한 폐기자료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 물리적 상태(파손, 망실, 소재불명, 복본 등), 2) 내용의 가치 판단 기준(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개정판, 출판년도, 커리큘럼, 해당 기관의 연구경향, 언어, 출판사, 저자의 신뢰도, 해당 대학 관련 자료 등), 3) 이용 관련 기준(대출기록, 이용통계), 4) 기타 기준(기증 자료 여부, 출판목록, 전문가의 판단)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장서폐기와 관련된 연구 중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정보봉사분과위원회의 연구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폐기규정의 실제 사례를 비교적 폭넓게 조사·정리하고 있다(정보봉사분과위원회, 2014).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3년간 대학도서관에서 활발한 장서폐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하고, 국내 사립대학 37개 기관의 장서폐기규정의 홈페이지 내 공개위치, 항목, 폐기대상 자료 기준, 처리절차, 최종결재권자, 폐기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는 대학의 폐기제적 기준에 명시된 '이용 가치가 없는 자료'에 대한 정의를 여러 대학의

기준을 취합하여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단행본 장서의 제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학문적 가치, 시사 및 참신성이 없고 출판년도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거나 개정판 또는 신판을 취득한 자료'로 명시하고 있지만,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과복본, 불필요한 복본'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2014년도 조사 당시에도 '최근 5년간 대출이나 이용이 거의 안 된 자료의 복본'이라는 기준을 가진 기관이 있었으며, 2002년, 2008년의 연구들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2014년에는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규정 성문화는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대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정과 과거 제시된 사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인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사서 면담의 질문항목을 설계하였다.

2.2 도서관 소장장서 디지털화 관련 저작권법

단행본 콘텐츠의 활용 측면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장장서 디지털화 과정의 저작권법상 제약과 장애 요소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최나빈(2016)의 연구는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에 필요한 법적 이슈와 해외 사례에서의 해결 과정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통해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논의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대량 디지털화 활용단계에서 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나 보상금 책정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서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낮추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도서관에서 대량 디지털화를 시도하는 경우 보상금 책정 기준이 상업화된 자료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비영리 영역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경우 복제·전송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홍재현(2011)은 도서관 저작물의 복제·전송 보상금제도가 효용성이 있는지를 보상금 지불기관 측면, 보상금을 받는 저작자 측면에서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보상금이 실질적 보상으로는 미흡하고, 분배의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호신(2014)은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을 설명하며, 2011년 국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 도입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 저작권법 판례를 들어 비교함으로써, 절판도서나 미발행 저작물의 전체 복제, 표지·목차·초록의 제공과 같이 저작물 이용목적이나 효과에 따른 구축 사례를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학술정보통계 데이터 분석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정보통계 데이터(학술정보통계시스템, 2021)를 활용하였다. KERIS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에 포

함된 대학도서관 수는 458개 기관이지만, 통계 공시가 시작된 2008년과 2009년은 소장도서관의 종수와 책 수 통계가 누락된 기관이 많아 분석 대상 시기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대학원대학이나 특수목적의 대학은 일반 대학도서관과 여건 차이가 커서 제외하였다. 대학도서관 중 분석 대상은 10년 동안 3번 이상의 장서폐기를 시행하였거나 한해에 장서 대비 2.5% 이상의 장서를 폐기한 기관으로 하였다. 특히 장서량의 2.5% 이상을 폐기한 경우 '집중 폐기 기준'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폐기한도를 장서의 3% 이내로 정한 기관이 90%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를 참조하고(김미혜, 리상용, 2011, p. 257), 실무적으로도 2.5~3% 폐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관행을 고려하여 2.5%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3.2 전문가 면담

통계데이터 분석 이후 8개 대학도서관의 장서관리부서 사서와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기관의 선정기준은 집중폐기를 시행하고 10년간 3회 이상 장서폐기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의 장서관리부서 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사서를 섭외하여, 2021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피면담 사서의 소속기관 유형은 국

립 1개 기관, 사립 7개 기관이며, 대학도서관의 규모로 보면 장서 수 200만 권 이상 규모(대형)의 대학 5개 기관, 100만 권에서 200만 권 사이(중형) 2개 기관, 100만 권 이하(소형) 1개 기관이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 문항은 폐기규정, 집중 폐기의 목적, 주요 폐기대상 자료의 특성, 폐기 처리 방법 등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 외에, 폐기 장서의 세부적인 특성, 단행본 복본자료의 포함 여부, 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 통계분석에서 확인한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였다. 반구조화 면담방식을 통해 개별 면담자의 의견을 듣고 사전에 개발된 코딩 항목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도서관에서 직접 디지털장서를 구축하는 방안 및 구축의 장애 요소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집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현황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의 장서폐기 분석에 유효한 분석대상 기관은 학술정보통계의 대학 규모를 기준으로 국공립과 사립 312개 기관이다. <표 2>는 312개 기관이 폐기한 단행본 규모를 보여준다.

<표 1> 면담 대상기관 특성 및 피면담자 직책

	A	B	C	D	E	F	G	H
설립	사립대	사립대	사립대	사립대	사립대	사립대	국립대	사립대
장서 규모	대형	대형	대형	대형	중형	소형	중형	중형
면담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표 2〉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규모

	A그룹		B그룹		C그룹		합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10	66,547	322,248	27,558	63,919	4,291	29,564	514,127
2011	49,558	248,017	1,146	192,011	5,762	38,981	535,475
2012	160,086	633,170	36,793	386,350	2,342	96,147	1,314,888
2013	81,681	423,483	27,841	170,049	22,354	31,654	757,062
2014	46,439	397,196	7,055	162,065	24,500	122,582	759,837
2015	61,077	433,980	23,265	151,825	7,924	54,668	732,739
2016	1,206	692,763	0	127,450	16,825	18,890	857,134
2017	106,546	305,264	0	57,323	17,964	18,035	505,132
2018	16,805	308,364	307	200,830	17,074	10,796	554,176
2019	426,610	584,686	50,761	179,891	2,390	23,022	1,267,360
합계	1,016,555	4,349,171	174,726	1,691,713	121,426	444,339	7,797,930

〈표 2〉에서 A, B, C 그룹은 KERIS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대학 규모를 나타내는 용어로 4년제 대학의 A그룹은 재학생 수 10,000명 이상, B그룹은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C그룹은 재학생 수 5,000명 미만을 의미한다. 전문대학의 A그룹은 재학생 수 4,000명 이상, B그룹은 재학생 수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 C그룹은 재학생 수 2,000명 미만인 대학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779,793권의 장서가 폐기되었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연간 전체 폐기 장서 수 합계가 2012년에는 1,314,888

권에 이르고 있다. 대학 규모를 기준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장서폐기량을 비교해 보면 A그룹에서는 사립대의 폐기장서 수가 국공립대 폐기장서 수의 4.27배이고 B그룹의 경우 9.7배까지 차이를 보인다.

〈표 3〉은 312개 기관을 대학 규모 대신 장서 규모별로 재분류하고, 각 그룹을 다시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 폐기장서 수와 기관당 평균 폐기장서 수를 정리한 것이다. 대학 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만 나타났는데, 장서 규모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

〈표 3〉 대학유형별 폐기장서 수와 도서관 장서 규모별 폐기장서 수 비교

	국공립			사립		
	기관 수	폐기장서 수	평균 폐기 수	기관 수	폐기장서 수	평균 폐기 수
A그룹	15	1,016,555	67,770	94	4,349,171	46,267
B그룹	13	174,726	13,440	82	1,691,713	20,630
C그룹	20	121,426	6,071	88	444,339	5,049
대형	3	448,371	149,457	6	1,208,569	201,428
중형	10	528,609	52,861	27	2,063,718	76,434
소형	35	335,727	9,592	231	3,212,936	13,908

* 대형은 장서 규모 200만 권 이상, 중형은 100만 권 이상 200만 권 미만, 소형은 100만 권 미만

200만 권 이상의 대형 대학도서관이 가장 많은 장서를 폐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서 규모가 소형인 대학도서관 그룹에서 폐기한 전체 장서 수가 가장 많았지만, 기관당 폐기 규모로 보면 대형 대학도서관이 더 많았고, 장서 대비 폐기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장서폐기를 시행한 기관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이 통계에 포함된 대학은 당해 연도 보유 장서 수의 0.1% 이상의 장서를 폐기한 기관으로 한정하였는데, 0.1% 이하의 장서폐기는 분실도서나 손상된 도서의 폐기 등 일상적인 작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표 4〉에서 2012년, 2015년, 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폐기를 시행한 기관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도 2012년과 2019년이 다른 해에 비해 장서폐기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량의 차이가 3~4년의 주기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석대상 기관 중 폐기율 범위를 구간별로 파악해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폐기율로 폐기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표 5〉는 2.5% 이상의 집중폐기를 시행한 경우 해당 연도 폐기율을 구간별로 정리해서 빈도를 표시하였다. 소

〈표 4〉 장서폐기 시행 기관 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대형	국공립	2	1	2	2	2	1	0	1	1	3	15
	사립	2	4	4	5	3	3	5	3	5	4	38
중형	국공립	0	1	3	1	0	1	0	1	0	3	10
	사립	9	7	11	10	10	11	9	6	9	8	90
소형	국공립	7	7	6	6	6	5	2	5	5	6	55
	사립	33	35	44	37	37	43	30	28	31	39	357
합계		53	55	70	61	58	64	46	44	51	63	565

〈표 5〉 집중폐기(연간 장서 수 2.5% 이상)를 시행한 빈도수

(단위: 건)

장서 대비 폐기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합계	구간비율
2.5% 이상 3.0% 미만	1	4	2	5	1	5	0	2	1	4	25	14%
3.0% 이상 5.0% 미만	7	5	8	8	5	6	10	7	3	7	66	38%
5.0% 이상 7.0% 미만	2	1	4	9	4	5	5	0	4	5	39	23%
7.0% 이상 10.0% 미만	2	1	4	1	4	2	1	1	0	6	22	13%
10.0% 이상	1	4	7	1	2	1	2	1	1	1	21	12%
2.5% 이상 폐기 시행 합계	13	15	25	24	16	19	18	11	9	23	173	100%

장도서 수 대비 3%~10% 구간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21개 사립대학교 도서관은 10%가 넘는 폐기율을 보였다.

분석대상을 그룹화해서 상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3번 이상 폐기를 실시한 경우와 장서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집중장서 폐기를 한 번 이상 실시한 경우를 '적극적 장서관리 기관'으로 명명하여 정리하고, 이 범주의 대상기관을 선별하였다. <표 6>은 적극적 장서폐기 시행기관 수와 해당 장서 규모 그룹 내의 백분율을 보여준다. 장서 규모가 대형인 6개 사립 대학도서관 중에서 집중폐기를 포함한 '적극적 장서관리 기관' 그룹에 속하는 기관이 5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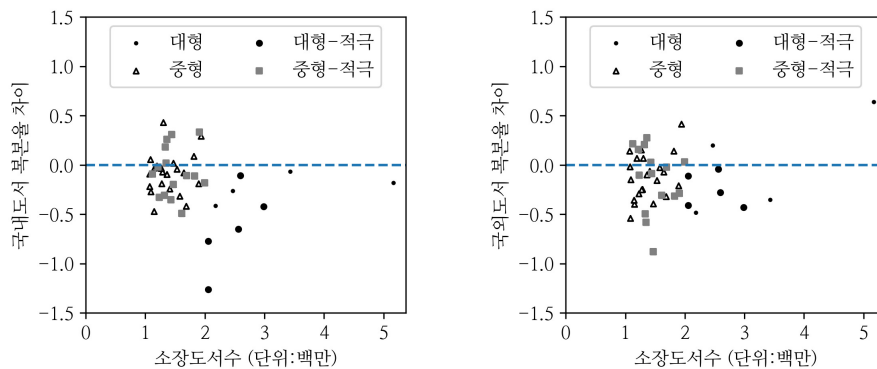
규모별로 비교한 그룹 가운데 비율이 83%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장서관리 기관에서 지속적인 장서폐기로 인하여 단행본 복본이 감소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과 2019년의 국내도서와 국외도서의 복본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림 1>은 장서 규모가 대형인 도서관 9개와 중형인 도서관 37개 기관의 2010년과 2019년 국내도서와 국외도서의 복본율 변화를 산포도로 표현한 것이다. 학술정보통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폐기장서 데이터는 전체폐기 수만 제공하므로 장서폐기 과정에서 단행본 유형의 장서가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개별기

<표 6> 소장 규모와 설립유형별 적극적 장서관리 시행기관 수

	국공립		사립	
	적극적 장서관리 기관 수 (%)	분석대상 기관 수	적극적 장서관리 기관 수 (%)	분석대상 기관 수
대형	0 (0.0)	3	5 (83.3)	6
중형	4 (40.0)	10	11 (40.7)	27
소형	4 (11.4)	35	51 (22.1)	231

* 백분율(%) = 해당 기관 수/장서 규모 그룹의 기관 수



- 1) X축 소장도서 수는 2019년 장서를 기준으로 구분
- 2) 복본율 = 소장도서 책 수/소장도서 종수
- 3) 복본율 차이 = 2010년 복본율-2019년 복본율

<그림 1> 중형과 대형 장서 규모 대학도서관의 10년간 복본율 변화

관의 단행본 도서의 증감을 확인할 때 매년 차이를 비교하는 것보다 산포도를 통해서 10년간의 복본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1〉에서 각 점은 하나의 기관을 의미한다. 적극적 장서관리를 시행한 중형 도서관 16개 중 국내도서 복본율과 국외도서 복본율이 감소한 기관의 수는 각각 11개와 10개이고, 대형 도서관 6개 중 국내도서와 국외도서의 복본율이 감소한 기관의 수는 각각 6개와 5개로 조사되었다. 적극적 장서관리를 시행한 대학의 다수에서 단행본 복본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면, 100만 권 이상 장서 규모를 가진 사립대학교 도서관 중 적극적 장서관리를 시행한 경우 전반적으로 복본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대형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감소 폭이 더 커서 국내서 단행본 복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추론은 도서관별 데이터 수집을 통한 수치적 검증이나 도서관 폐기업무 담당자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4.2 장서폐기에 대한 사서 인식

4.2.1 장서폐기 관련 세부 내용

대학교서관의 장서폐기 현황 분석에서 집중폐기가 시행되었던 기관을 선별하여 인터뷰 대상을 정하고, 8개 기관의 담당 사서 면담을 통해 장서폐기규정, 집중폐기의 목적, 폐기처리 방법 등 통계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별기관의 장서폐기 내용을 파악하였다.

집중폐기작업의 목적은 열람실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확보, 보존서고로의 장서 이동, 서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간을 열람실로 완전히 개편하는 작업 등 기관마다 매우 다양했다. 보존서고를 마련한 도서관의 경우 주기적으로 장서 이동과 자료 재배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매년 장서 점검과 함께 서가 공간을 재배열하는 관리방식을 택한 대학도서관은 2개 기관이었다. 이 두 대학도서관에서 집중폐기가 발생한 이유는 매년 실시하는 폐기자료를 몇 년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자산 처리하기 때문이었다.

각 기관에서 응답한 결과는 모두 소장공간의 부족 문제가 적극적인 장서폐기의 원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보존서고 등 공간의 여유가 있는 기관들도 보존서고로 장서를 이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서 점검과 장서폐기를 시행하고 있었다. 세 곳은 비교적 소장공간의 여유가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장기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답한 곳은 세 기관 중 국립대학 한 기관이고(최근에 보존서고를 확보), 나머지 기관들은 소장공간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기관 내에서 추가 소장공간 확보가 가능한가를 질의했을 때, 다섯 기관 모두가 추가 확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기관이 홈페이지에 장서폐기규정을 공시하였는데, 폐기대상 자료에 대한 기준을 공개한 기관은 5개, 포괄적 원칙을 기술하고 상세한 지침을 별도로 두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3개였다. 장서폐기율 한도 규정도 장서의 3% 또는 5% 이내로 요율을 명시한 경우와 명시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폐기율 한도에 근접한 수준의 대량폐기를 시행할 경우에 폐기대

〈표 7〉 기관별 장서폐기규정 및 단행본 폐기 기준

	장서 규모	설립 유형	폐기규정	결재권	폐기율 명시	집중 폐기	단행본 복본 폐기 기준
A 도서관	대형	사립	홈페이지	관장	5%	시행	5년 이내 이용기록 확인 + 다중 조건
B 도서관	대형	사립	홈페이지	관장	-	시행	5년 이내 이용기록 확인, 이공계 자료만 부분적 시행
C 도서관	대형	사립	홈페이지, 세부지침 별도	별도	3%	시행	통계분석을 통해 기준 설정
D 도서관	대형	사립	홈페이지	관장	-	시행	5년 이내 이용기록 확인 + 다중 조건
E 도서관	중형	사립	홈페이지	총장	-	시행	10년 이내 이용기록 확인 + 다중 조건
F 도서관	소형	사립	홈페이지, 세부지침 별도	총장	-	시행	5년 이내 이용기록 확인 + 2000년 이전 출판자료 전반적으로 실시
G 도서관	대형	국립	홈페이지, 세부지침 별도	관장/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	없음	2000년 이전에 출판된 과다 복본만
H 도서관	중형	사립	홈페이지	관장	-	시행	이공계 자료만 선별적, 폐기심의위원회 운영

상 선별을 위해 상세지침을 제정하거나, 선별 작업을 위한 특별작업팀을 운영하였다. 국립대의 경우는 자료폐기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승인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집중폐기대상이 되는 자료의 폐기순서는 타 대학 학위논문, 온라인 이용이 가능한 참고자료, 타 대학 학술지 등이었다. 전자구독 연간물의 경우는 현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패키지 구독조건이나 예산상 문제로 구독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인쇄본을 계속 유지하는 등 저널마다 구독조건과 이용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다.

단행본 복본 폐기에 대해서는 사서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룹은 심각한 소장공간 부족을 경험하는 도서관이었다. 이 가운데는 서가에 한 권만 남기고 모든 복본을 정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비교적 보수적인 장서폐기 기준을 시행하는 기관은 보존서고 등 공간적인 여유가 확보된 도서관으로, 단행본 복본 폐기는

자연과학이나 컴퓨터 분야 활용서에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인문사회 분야 도서는 가급적 폐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대출기록 및 이용기록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이용이 없을 경우라는 기준에 대해서 사서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인문사회 분야 자료는 더 신중하게 폐기자료를 선별하기도 하지만 ‘과다 복본’(복본 수가 5권 이상 또는 보통 기준보다 많은 경우)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료 이용이 없었던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더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서가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인문사회 분야 자료일 경우는 신중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논의 가운데 폐기장서의 목록을 대학 간에 공유해서 같이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과거에 폐기도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증 또는 학생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던 기관조차도 현재는 장서인이 찍힌 도서가 외부에 유통되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완전 파쇄를 하고 있었

다. 파쇄하는 이유는 콘텐츠의 가치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장서인이 찍힌 도서를 기증하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관리상의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면담한 8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완전 파쇄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고, 한 개 기관만 최근 폐기작업에서 정리된 도서리스트를 공지하고 도서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부 배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2.2 장서폐기의 문제점

장서폐기의 세부사항에 대한 면담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면담에 참여한 대학도서관에서 상당히 많은 단행본 복본자료의 폐기를 시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백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기관 중에는 한해에 단행본 8만 책 이상 폐기를 시행한 사례가 있고, 백만 장서 이하의 기관에서도 4만 6천 책이 넘는 단행본을 폐기한 경우도 있었다. 6개 기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내서 단행본 위주로 상당량의 복본 폐기를 시행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개 기관은 일상적인 관리수준을 넘어서는 단행본 폐기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대부분 도서관에서 해외도서의 경우는 보수적으로 폐기를 결정하지만, 집중 폐기작업이 시행 과정에서 국내서 단행본 폐기 규모는 만 단위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10년 동안에 대학도서관에서 꾸준히 폐기작업을 실시해 왔다면, 집중장서관리 기관의 경우는 가장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료부터 폐기를 진행하여 상당히 많은 장서가 폐기되었다고 보인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미 십 년 이상 수차례 큰 규모의 장서폐기 작업을 시행했던 기관의 사서는 지금 더 버릴 자료도 없지만, 다시

장서폐기를 시행하면 그 자료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료들일 것이며, 장서폐기가 계속 지속 되면 장서구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학도서관의 소장공간 부족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장서를 폐기하고 정리했음에도 다시 장서가 늘어나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폐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과정에서 폐기대상 자료 선별은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자료 구입 만큼이나 까다로운 선별 노력이 요구된다. 사서들이 선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경우는 바람직한 경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규모 폐기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단행본 폐기장서를 콘텐츠 활용가치로 판단해서 폐기할 수 없다는 점, 특히, 인력에 대해 많은 압박을 받는 대학도서관 입장에서 폐기대상 선별 작업의 인력투입은 부담이 큰 과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간 리모델링, 서가의 전면 재배치 등 큰 폭의 장서 재배치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일정 안에 작업을 시행할 때는 단행본 복본 폐기 선별 기준을 출판년, 5년 이내 대출기록 여부, 분류번호 등 몇 가지 기준을 조합하여 일괄적으로 폐기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폐기 장서였던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사서들은 대부분 상호대차를 이용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중고도서라 하더라도 추가로 구입한다고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모든 사서는 폐

기대상 자료를 선별하거나 폐기할 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사서들은 대학도서관마다 장서구성과 소장 공간에 대한 여건이 달라서 한 도서관에서의 폐기대상 단행본의 기준이 일반화될 수 없고, 다른 기관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사서들도 단행본 폐기장서 중 일부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사서들은 폐기장서를 기관 간에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학들이 디지털화된 원본을 공동으로 협업해서 구축·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 사서는 요즘 학생들의 이용행태를 보면 도서관에 직접 책을 대출하기보다는 구판 자료라 하더라도 전자적인 접근할 수 있다면 이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2.3 저작권 면책규정과 제약요소에 대한 인식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으로 도서관이 소장도서를 보존용으로 디지털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대한민국저작권법 제31조 ①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을 때 5명의 사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 내에서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디지털장서를 이용하는 경우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 숫자를 기준으로 동시접속 이용자 수를 정한다는 내용(제31조 ②)에 대해서는 4명의 사서만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4명은 저작권법의 면책이 있음에도 도서관이 디지털 복제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 과도한 보상금 책정 문제와 복

제한 내용을 컴퓨터로 이용시킬 경우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제한된 불리한 조항의 내용도 잘 알고 있었다.

디지털장서로 변환해서 도서관 내에서 이용을 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시 이용자 수를 원래 장서의 소장 부수로 제한한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만일 저작권법에 따른 제도의 틀 안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면 디지털장서의 동시접속 이용권을 활용하려면 도서를 제적 처리하기 이전의 소장 권수로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부 사서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대학 도서관들이 하티트러스트(HarthiTrust) 비상 임시접근 서비스(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를 활용하여 해당 대학의 소장 장서를 해당 기관의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장장서 수만큼의 동시접속을 허용하며 시간제 이용방식으로 디지털장서로 서비스하는 사례(HarthiTrust ETAS, 2021)를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서들이 디지털장서 구축의 가장 큰 제약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범위를 캠퍼스 내 이용이 아닌 도서관 내 이용으로 제한하는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사서들은 가능하다면 대학도서관 협력체제 안에서 디지털장서의 원본을 보존하고, 일부분이라도 수업 활용 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소장공간의 압박을 느끼는 도서관들의 경우는 디지털장서로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오히려 물리적 장서를 보존서고로 재배치하고 디지털장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4.2.4 폐기 단행본 콘텐츠 활용 및 기타 의견

폐기 단행본의 콘텐츠 활용 관점에서 파악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장공간 확보의 수단으로 단행본 장서폐기를 많이 시행하는 기관의 사서들이 장서의 디지털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별기관의 추진이 어렵고, 학술·연구 진흥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디지털장서의 동시 이용자 수 제한 규정은 제약요소이므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저작권법상 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도서관이 단행본을 디지털화해서 보존할 때 각 도서관에서 원래 소장한 권수를 해당 대학도서관의 디지털 장서 이용권의 개념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각 대학이 직접 아카이빙 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폐기장서의 자산 제적처리가 필요하므로, 제3의 기관에 폐기장서를 위탁해서 활용하는 것이 대학의 자산 제적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대학도서관 입장에서 장서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폐기 이후에는 대학도서관 평가에 불리하니, 폐기장서는 디지털 복제본으로 보관하고 도서에 대한 권리를 전자책 처럼 인정받게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면담의 시점이 코로나로 대학도서관 서비스가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서들은 디지털 장서의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다. 면담에서 도출된 제안을 추가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학도서관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이 파악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규정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의 10년간의 폐기 현황을 학술정보통계에 공시된 대학도서관 장서 데이터(2010~2019)를 통해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현황 분석을 통해서 국내 대학도서관 중에 2백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한 사립대학도서관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장서관리와 폐기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소장공간의 부족 문제로 '적극적인 장서관리'를 시행하는 대학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집중폐기 실시과정에서 폐기장서 수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폐기장서 가운데 단행본 자료가 많이 포함된 것을 대학도서관 장서통계의 복본율 감소 현상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서폐기 통계에서 설명되지 않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 장서관리'를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서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집중폐기 목적, 목적과 폐기대상 자료의 성격, 대상 자료 선별 기준, 처리 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중폐기를 실시하는 일부 대학도서관은 장서폐기를 통한 공간 확보가 거의 유일한 소장공간의 해결방법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장서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폐기대상 선정과는 달리, 특정 시점에 리모델링 또는 부족한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집중 대량폐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에 의해서도 대상 자료가 선별되고 있었고, 콘텐츠 이용가치가

있는 장서들이 폐기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서들은 현재 진행되는 집중폐기 과정에서 선별되는 단행본 장서의 일부는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장공간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는 기관의 사서일수록 폐기 단행본 활용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들이 단행본 폐기도서의 활용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하면서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해서 이용하는 권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도서관이 소유했던 복본 장서의 권수를 콘텐츠의 동시접속 권리로 환산해서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내의 컴퓨터로 소장도서의 디지털 원문을 열람할 때 동시접속 이용 권한을 해당 도서의 구입 부수로 제한하고 있는 조치는 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이용시키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의 장서관리 수단으로 장서폐기는 지속해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소장공간 확보를 위해 과감하게 장서를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원이면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물리적인 서가에 존재하는 콘텐츠와는 차원이 다른 활용 가능성을 제공하며, 디지털장서의 이용은 해당 사례가 다수 수집되어 검증될수록 서비스 실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콘텐츠 활용가치가 있는 폐기 장서에 대해 이용권 보존과 활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공유와 협력이 가능한 공동 자원으로 확보해나가기 위한 대학도서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권기백 (2008).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규정 및 실태 조사 분석. 사대도협회지, 9, 37-73.
- 김미혜 (2010). 대학도서관 장서폐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김미혜, 리상용 (2011).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249-2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2.249>
- 대한민국저작권법. 법률 제17592호, 제 31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20201208,17592,20201208\)/제31조](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20201208,17592,20201208)/제31조)
- 이호신 (2014).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87-413. <https://doi.org/10.4275/KSLIS.2014.48.1.387>
- 정보봉사분과위원회 (2014). 대학도서관의 장서폐기규정 사례에 관한 연구. 사대도협회지, 15, 1-26.
- 최나빈 (2016).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술정보시스템 (2021.01.26). 통계검색. 출처: <http://www.rinfo.kr/stat/search/basic/1>

홍재현 (2011).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 전송 보상금제도 효용성 평가.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2(3), 352-379.

HathiTrust ETAS (2021, Feb 13). Emergency temporary access service. Available: <https://www.hathitrust.org/ETAS-Description>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i, Nabin (2016).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n digitization of orphan works: Focused on mass digitization in libraries. M.A. thesis, Department of Law,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Korea.

Copyright Act of Korea (2021, Feb 05). Available: <http://www.law.go.k>

Hong, Jae-Hyun (2011).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352-379.

Information Service Committee (2014). A case study on material discard rules of academic libraries.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Kim, Mi-Hye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weeding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im, Mi-Hye, & Lee, Sang-Yong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eeding in academic library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2), 249-27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2.249>

Kwon, Ki-Baek (2008). An analytical study on the collection weeding regulations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9, 37-73.

Lee, Ho-Sin (2014).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387-413. <https://doi.org/10.4275/KSLIS.2014.48.1.387>

Research Information System (2020.01.26) Search for statistics of Korean university libraries. Available: <http://www.rinfo.kr/stat/search/basic/1>